# 월/요/광/장

임 내 현

## '황의 법칙'을 생각하며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이 지난 11일 발표한 40나노 32기가바이트 낸드 플래시메모리는 극미(極微)기술의 결정이다. 엄지손톱 크기에 328억개 메모리 소자를 넣은 최첨단제품으로 이 칩 16개를 모은 64기가바이트 메모리카드에는 고화질 영화 40편, 일간지 400년치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12일 50나노 16기가바이트 개발에 성공한 지 불과 1년 만에 2배 용량의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IT산업의 또 하나의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7년 연속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는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소위 '황의 법칙'을 입증한 것이다.

원래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널리 알려졌다. 미국 인텔사의 창립자인 무어(Gordon Moore)가 1965년에 제언한 것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메모리 칩의 능력은 18~24개월에 2배가 된다는 기술 개발속도에 관한 법칙이다. 그런데 '황의 법칙'에 따르면 무어의 법칙에 의한 예측보다 더욱 빠르게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가면서 컴퓨터의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우리 산업과 개인생활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2010년까지는 IT산업이 대표적 첨단산업이며 그 이후로도 다른 산업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에 비추어 이 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 및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미국방문시 미국 이민국직원이 삼성의 컴퓨터를 가지고 입국심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어 8월 파리 출장시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삼성애니콜을 든 손의 형상과 LG의 상징물이 과거 일본의 소니 등 유명전자회사들의 선전물이 차지하던 자리를 점유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경험들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나면서 IT산업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나아가 개인차원에서도 지식정보시대의 핵심적 작업도구가 되는 컴퓨터에 대한 기능습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컴퓨터를 다룰 지 몰라 컴맹(盲)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활용이 서투른 사람들이 신속히 컴퓨터활용기법을 습득하고 발전시켜야함은 물론 이미 상당 수준의 활용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워드프로세서 기능은 컴퓨터 전 기능의 5%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신속히 찾고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와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1995년 말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형사5부장검사로 재직중 성남지역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사람이 끼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사고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지시받은 전담검사가 사고사례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필자가 인터넷을 통해 중요일간지 기사검색을 하여 여러 사례를 찾아냈다.

이외에도 수사 기타 업무처리에 있어 여러 차례 인터넷이나 엑셀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 컴퓨터의 활용은 기기를 다루는 기술적 능력이나 대상이 이미 정해진 정보의 검색능력보다도 업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하는 기본적 발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요즘 무차별적으로 전개되는 허위, 과장의 비방과 폭력 음란물의 범람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일탈에 대한 특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위와 같은 규범일탈행위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므로 모든 의사표시는 실명에 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교환을 막는다고 반대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음란물과 폭력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우리 정보사회가 더욱 성숙되기 위하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범준수와 더불어 선진국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 차단장치 및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선진시민이 되어야 할 때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임 선 숙

## 변화의 고속도로에 오른 법조계

세계적 석학인 앨빈 토플러가 최근에 신작 '부의 미래'를 내놓았다.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토플러는 이 책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고속도로로 가정하고, 사회 각 기관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고 있다.

최선두는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기업이다. 그 뒤를 90마일의 속도로 바짝 뒤쫓는 부문은 시민·사회단체(NGO)이다. 3위는 놀랍게도 가정이다.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뒤로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노동조합, 25마일의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 기관, 그리고 10마일의 학교가 뒤쫓고 있다.

그 뒤에는 3마일짜리 정당이 기어간다. 이쯤이면 맨 끝 꼴찌를 기록한 느림보가 궁금해진다.

토플러는 그것이 '법'이라고 한다. 그는 법률회사들을 예외로 한다면 법원, 법과대학원 등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법'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간신히 살아있다.'라고 표현한다. 법은 본질적으로 변화의 주도자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물이고, 안정성이야말로 법의 핵심이라고는 한다.

하지만, 100마일로 변하는 사회를 1마일의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것은 다행히도 미국사회의 예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법과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을까?.

2002년 부터 교류를 해오고 있는 중국 절강성 율사(변호사)협회에서 얼마 전 광주변호사회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절강성 이우시(市)에 한국인 변호사를 파견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측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곧바로 중국 이우시 현지에 변호사를 보냈다. 조사 결과 현재 이우시에는 한국 기업이 3천여개, 거주 한국인도 5천여명이나 돼 관련 법률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실정이었다.

사실 이번 파견 요청은 이우시의 사법국장이 율사협회장을 통해 한 것이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계 법률회사의 국내진출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이들 외국기업들을 위한 법률가와 법률회사까지 유치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률가를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우리 법률가들의 인식과 태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최근 광주 변호사회에서는 합동이든 법률회사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법률가 재교육에도 예전과 달리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문화된 여러 영역을 빨리 확보하고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면서 변화된 재판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아직은 이우시를 포함한 중국 법률시장 상황을 더 조사하고 있지만, 조만간 광주에서도 황해를 건너는 개척정신을 가진 법률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변호사를 포함해 법률가들이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토플러가 말한 고속도로의 순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지방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기 고

주 영 순

## 기업유치 지역 주민이 앞장섭시다

우리 지역이 활력 넘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서 왕성한 생산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앞장서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꼭 필요하므로 지나친 규제와 간섭 보다는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체를 유치 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은 현행법규나 제도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 오지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환경문제나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북 구미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합니다.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내에서 현금 지원하고 업종 분류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공장을 만들경우 3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체에는 공장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는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면 좋은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의 많은 인력이 직업을 갖게되고, 건설경기뿐 아니라 식당,생활용품 가계도 활성화되고 협력업체도 늘어나 지역인구 증가와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산업기반시설이 전무했던 전남 서남부 지역에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신인 한라중공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다른지역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우리지역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공장을 세운 고 정인영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상공회의소가 앞장서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흉상을 세우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한 기업가의 노력이 오래기억되고 또 다른 대기업의 입주를 환영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행정기관만의 몫이 아니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지역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J프로젝트, 기업도시 등 원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 민간단체가 함께 기업유치 협의회를 결성하여 대외적인 유치홍보 활동을 펼치고, 과거의 피해 의식보다 장래의 많은 혜택에 큰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발전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리고 오래 살아가는 주민들의 노력과 의자가 가장 중요하고, 행정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 잠그는 장치 없는 절수 샤워기 기능 개선 돼야

지난 일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샤워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공중 목욕탕에 설치한 절수형 샤워기는 대부분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정시간 물이 나오다가 멈추도록 돼 있다.

문제는 샤워기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도록 설치된 반면 별도로 잠그는 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번 누른 뒤 잠글 수가 없어 그대로 물을 틀어 놓고 가버리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세숫대야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계속 몸을 씻는 것은 예사고 물을 불필요하게 많이 퍼 쓰기도 한다.

절수형 제품을 설치하기는 했더라도 '물 사용이 얼마나 줄겠어'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절수 샤워기가 물을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점을 감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김형기·광주시 북구 용봉동

## 비상 조명등 가져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회사 동료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주인이 손에 작업용 장갑을 낀 채 휴대용 비상 조명등 3~4개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통로에 피난구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했는데, 1주일이면 몇 개씩 없어져 그때 그때 다시 넣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들어 왔다가 나가면서 조명등을 몰래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노래방 업주가 계속 조명등을 설치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자칫 대피로를 찾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얼마 안되는 조명등을 가져가 비상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 사 설

## 광주비엔날레 정체성 확립으로 거듭나야

'열풍 변주곡'을 주제로 한 제 6회 광주비엔날레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아시아 최대의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주최 측의 노력과 광주시민의 관심이 광주비엔날레를 우뚝 서게 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속의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체성의 확립이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비엔날레와 차별화에 실패했고 광주의 독자적 색깔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엔날레도 세계화·국제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국제화를 외치면서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국제화나 세계화도 지역 정체성의 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정체성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광주비엔날레가 특색없는 전시로 정체성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죽하면 대회 때마다 화려한 주제에도 불구,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백화점식' 비엔날레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일부에선 광주비엔날레가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사이, 싱가포르 및 상하이 비엔날레가 급성장하며 광주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체적인 전시 노하우 및 해외 미술계 인사들과 섭외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것도 광주비엔날레의 한계다. 대회 때마다 전시 구성과 작가 섭외 등을 총감독 등 일부 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떠나가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광주비엔날레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미래를 곰곰이 따져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청사진이 구체화될 때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미술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헌재소장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부재 사태가 빚어진 지 나흘이 지났다. 여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소장의 공백을 더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헌재가 수장의 부재로 그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여론도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헌재 소장의 공백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광주일보사가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기관인 헌재가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쟁으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절차가 미흡하거나 법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를 우선 존중하는 국회운영의 관례에 따라 이번 사태도 절차적 문제는 국회에서 협의해 보정(補正)하고 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 중심당 등 야 3당도 여야 합의 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야 3당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전 후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야 3당의 중재안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이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 후보의 부적격 여부는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해 표로 의사표시를 하면 될 일이다.

정치권은 국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19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 '신(新) 삿초동맹'

일본 최남단 규슈(九洲)를 본거지로 한 사쓰마(薩摩·가고시마현)번과 서부지역 조슈(長洲·야마구치현)번은 1866년 '삿초(薩長)연합'을 맺은 뒤 260년동안 유지돼온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왕정복고를 이뤄냈다. 일본 근대화의 모태가 된 '메이지(明治) 유신'이다.

유신의 주역인 조슈와 사쓰마의 젊은이들은 일본 군부와 정계를 장악한 뒤 근대화와 함께, 급속한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조선 병합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전이 대표적이다. 조슈와 사쓰마 군벌은 일본 육·해군을 장악하는 양대 파벌을 형성했다.

그중에서도 조슈번이 일본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조슈번에 해당하는 지금의 야마구치(山口)현은 인구 150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역대 총리 56명중 7명을 배출했다. 단연 최고다.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로는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조선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조선총독),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주한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유독 한반도 침략의 주역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을 앞두고 한일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아베 장관이 헌법 개정 등 연일 극우 정책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의 고향이 바로 야마구치현이다. 아베의 아버지는 1980년대 외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그러나 그는 정치적 유전자를 1950년대 총리를 지냈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에게서 물려받았다. 기시는 만주 침략의 주역으로 태평양전쟁 이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된 극보수 인물이다.

일본 언론은 가고시마 출신인 고이즈미(小泉) 총리에서 아베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를 '신 삿초동맹'으로 명명했다. 조슈와 사쓰마의 21세기형 연합,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 편집부 2200-629 / 정치부 2200-616 / 경제부 2200-617 /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 문화생활부 2200-626 / 여론매체부 2200-628 / 체육팀 2200-627 / 사진부 2200-690 /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AX 222-8005〉 / 광고국 2200-521 〈FAX 227-9500〉 / 디자인 2200-536 / 사업2부 2200-552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